## 광주·전남 私교육 대해부 ❺ 광주 첨단고 사례로 본 대안

# ‘방과후 학교’ 학원보다 나아요

### 수준·영역별 135강좌 나눠 심화 학습
### 수강료 학원보다 70% 싸고 효과 만점
### 98% 참여속 학원서 학교로 ‘U턴’ 늘어

우리 사회에 사교육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학교 교육이 학부모 및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싼 돈을 들여가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 대부분은 “사교육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가능해 학교보다 학습 효과가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역으로 해석하면 학교 교육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한다면 자녀를 다시 학교에 맡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교육 확산에 ‘남의 애는 다 학원에 가는데 우리 애만 안 가면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하는 불안심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크게 작용했던 만큼 만약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교로의 회귀’가 시작만 된다면 역시 도미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광주 첨단고의 사례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방과후학교’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 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 8·9·10교시에 ‘학부모교육과정협력단’ 주체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각 강좌당 수강생 수를 기존 학급의 절반 수준인 20명으로 줄였다. 수준별·영역별로 차등화시킨 135개의 강좌를 개설했다. 웬만한 학원보다 훨씬 많은 강좌수다. 영어의 경우 상·중·하급 반 등 모두 38개의 강좌가 있으며 수학 역시 21개 강좌가 마련돼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강좌를 직접 선택한다.학교 측은 각 강좌별로 강사 이름을 공개해 학생들의 선택을 돕고 강사들의 책임감을 높여 수업의 질을 높였다. 다른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 등 외부 강사도 17명이나 된다.

학교 측은 특히 학생들이 주로 학원에서 수강하는 영어·수학·논술의 경우 정원 수 9~10명의 심화과정반을 편성, 학원처럼 소수정예로 운영하며 개별지도하고 있다. 강좌당 수강료는 정원수 20명 안팎에 50분(1시간)씩 수업하는 일반 강좌(20시간 기준)가 평균 3만2천여원, 정원 수 9~10명으로 70분(1시간)씩 운영되는 심화반(10시간 기준)이 평균 5만5천원으로 일반 학원의 30%수준에 불과하다. 저렴한 비용에 학원처럼 수준별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보니 참여율은 1학년 98.8%, 2학년 97.1%에 달했다.

학교 측이 1학기를 마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은 ‘매우 만족’ 16.35%, ‘만족’54.13% 등으로 70.48%가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의 경우 ‘매우 만족’ 14.89%, ‘만족’ 60.76% 등 75.65%로 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도 대부분 학원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학교 김병채 교장은 “아직 학부모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고 있는 게 한계지만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방과후학교’ 확대 강화는 학교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첨단고 논술 심화반 학생들이 27일 오후 ‘방과후수업’에서 참여해 외부강사인 전남대 국어교육연구원 이혜강(여·43)씨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남해안 해파리 ‘비상’

## 여수·완도 독성 강한 ‘노무라입깃’ 출현

### 수온 오르며 개체수 급증할 듯

여수와 완도 앞바다 멸치잡이 등 어선어업 어민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7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에 대형종인 노무라입깃 해파리〈사진〉가 출현했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발견된 해역은 경남 형제도~여수 거문도~완도 청산도~제주도까지 남해안 모든 해상이다.

전남해역에서 발견된 ㎢당 개체 수는 ▲광도(여수시 삼산면) 6천162개체, ▲거문도 위쪽 1천562개체 ▲초도(여수시 삼산면)~청산도(완도) 1천242개체 ▲청산도 7천456개체 등으로 조사됐다. 크기는 지름 20~80㎝이다.

현재 나타난 해파리는 무게 0.3~7.5kg 정도의 유체이나, 완전 성숙하는 9~10월에는 지름 1m ·무게 200kg 이상까지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8월 이후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개체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남해안 멸치어장 등의 황폐화가 우려된다.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발생, 대만 난류 및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한국 연근해로 이동하고 있으며, 매년 해수욕객과 어선 어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28일 전남대학교 ‘동백호’의 동중국해 조사 때 처음으로 관찰됐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사례 접수는 없지만 해파리떼 출현으로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어민 스스로 예찰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노무라입깃 해파리(Nemopilema nomurai)=독성을 띠고 있으며 어린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 연안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 해파리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거북·쥐치 등의 천적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번에 약 1억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해파리 수가 급증하고 발견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욕장에서 쏘일 경우 식초나 알코올로 씻어낸 후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 주수도 JU 회장 도피행각 ‘007 작전’ 방불

### 휴대전화 17개·지갑엔 천만원
### 갓길 정차 휴식…추적 따돌려

불법 영업 의혹과 관련, 장기간 잠적했던 국내 최대 다단계업체인 제이유(JU)그룹의 주수도(50) 회장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주 회장이 타고 있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도피기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7대를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갓길에 차를 정차해놓고 쉬었다 가는 방법으로 검찰의 추적을 따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주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호텔을 전전하거나 차 안에서 자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으나 전 제이유 사업자였던 조모씨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자신의 전원주택 방 한 칸을 내준 지난달 20일께 이후에는 그곳에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주 회장 지갑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7장과 100달러 지폐 등을 포함해 1천만 원 가량이 들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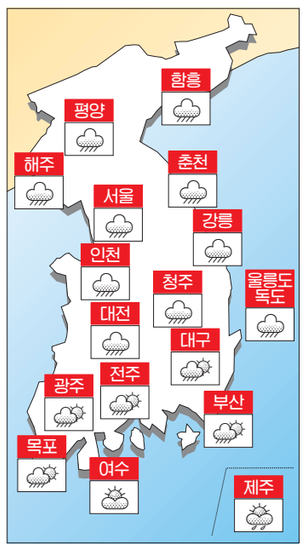
검찰은 이날 사기·횡령 등 혐의로 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굿바이 ‘장마’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온 뒤 개겠다.

**7월 28일** (음 7월 4일) ◇전국날씨

| | | |
|---|---|---|
| 광 주 | 비온뒤 갬 | 23~31℃ |
| 목 포 | 비온뒤 갬 | 24~30℃ |
| 여 수 | 구름 많음 | 22~27℃ |
| 완 도 | 구름 많음 | 22~30℃ |
| 구 례 | 비온뒤 갬 | 22~31℃ |
| 해 남 | 구름 많음 | 22~30℃ |
| 장 흥 | 구름 많음 | 22~30℃ |
| 고 흥 | 구름 많음 | 22~29℃ |
| 순 천 | 비온뒤 갬 | 22~31℃ |
| 영 광 | 비온뒤 갬 | 23~31℃ |
| 진 도 | 흐린뒤 갬 | 24~31℃ |
| 전 주 | 비온뒤 갬 | 23~31℃ |
| 남 원 | 비온뒤 갬 | 23~31℃ |
| 정 읍 | 비온뒤 갬 | 23~31℃ |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 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4:16 16:11 썰물〈 09:30 21:26
여 수 밀물〈 10:46 23:10 썰물〈 04:44 16:46

▲해뜸 05:38 ▲해짐 19:39 ▲달뜸 08:12 ▲달짐 21: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29(토) | 30(일) | 31(월) | 8/1(화) | 2(수) | 3(목)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3/31 | 24/30 | 24/31 | 24/32 | 24/32 | 24/31 |

# 광주·전남 마지막 장맛비

### 오전까지 10~40㎜

막바지 장맛비가 28일 광주·전남 등 전국에 쏟아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하(南下)하면서 28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방에 10~40㎜의 장맛비가 내리겠다”며 “광주·전남은 이날 오후부터 장마가 끝나고 30도 이상의 불볕 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 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서울·인천·경기·강원 지방은 28일까지 100~200㎜, 많은 곳은 3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27일 호우경보 및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장마전선은 29일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이후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장마가 끝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제5호 태풍 ‘개미’(KAEMI)가 중국을 강타하면서 함께 몰고온 수증기가 남해안에 걸쳐있던 장마전선을 활성화하면서 서울·경기에 하루 최고 150㎜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지난 25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를 뿌렸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멸종위기 동식물 54종 2015년까지 복원

멸종위기 동식물 54종에 대한 증식·복원 사업이 2015년까지 추진된다.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2006-2015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424억원을 투자, 증식 복원할 동물은 모두 18종으로 포유류 7종(반달가슴곰·산양·여우·사향노루·시라소니·대륙사슴·바다사자)과 파충류 1종(남생이), 곤충류 3종(장수하늘소·상제나비·소똥구리) 등이다.

어류 6종(꼬치동자개·감돌고기·임실납자루·미호종개·퉁사리·얼룩새코미꾸리)과 조류 1종(황새)도 포함됐다.

식물은 광릉요강꽃·노랑만병초·노랑무늬붓꽃·암매·털복주머니란·으름난초·홍월귤·노랑붓꽃·대흥란·망개나무 등 36종이다.

또 중동부 민통선 접경 지역에서 사향노루 1마리를 처음으로 포획, 증식 복원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